

1700년전 부안 ‘해양제사 현장’ 사적 된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부안 죽막동 유적(왼쪽)’과 출토된 유물들.



〈부안군 제공〉

문화재청, 변산반도 죽막동 유적 지정 예고...의견 수렴 고대 안전 항해·풍어 기원...3~7세기 토기 등 출토

삼국시대부터 해양 제사가 치러진 ‘부안 죽막동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

3일 부안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부안 죽막동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변산반도의 서쪽 해안 절벽에 있는 부안 죽막동 유적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길목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

가 열렸다.

1990년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가야, 통일신라, 조선을 비롯해 고대 중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3~7세기 토기, 도자기, 금속유물 등이 출토됐다.

조사 결과, 부안 죽막동 유적에서 진행된 제의에 중국, 일본 사람이 참가했을 가능성, 제사가 끝난 뒤 제기를 포함한 각종 물품을 땅에 묻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부안 죽막동 유적의 경우 원시적인 제사를 지낸 흔적이 문화경관과 함께 그대로 보존돼 있고 해양 제사 문화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라는 점, 변산반도 앞바다를 수호하는 해신인 ‘개양할미’의 전설이 내려오고 매년 풍어를 바라는 용왕제가 지금껏 열리는 점 등에서 가치를 평가했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천연기념물’ 홍도 침단마을 대변신

ICT 기반 와이파이 통신망 갖춰 마을 시스템 무선 제어
보건지소 등 연계 어르신 돌보미·가스관리 등 생활지원

국내 대표적 관광 명소인 홍도가 스마트 창조마을로 탈바꿈했다. 침단 ICT기반 시설을 갖춰 주민복지 향상 및 관광객 편의도 높였다.

홍도는 국내 유일하게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섬을 뒤덮은 바위가 붉은 색 규암으로 이뤄진데다 해질녘 노을에 온 섬과 바다 전체가 붉게 물들어 붙여진 이름답게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하지만 섬 지역 특성상 문화·복지·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고 홍도의 자연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효율적인 지역홍보도 이뤄지지 못했다.

신안군은 이에따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 선정하는 ICT기반 창조마을을 시범 사업에 응모, 선정된 뒤 마을 모습 바꾸기에 나섰다.

‘ICT기반 홍도권역 창조마을’은 농어촌 마을에 ICT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 농어촌지역의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홍도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인 와이파이 근거리 통신망을 갖춰 마을 내 모든 시스템을 무선으로 운영·제어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홍도관리사무소, 보건지소, 국립공원, 홍도치안센터, 주민자치조직 등과도 연

계해 65세이상 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전가구 가스안전관리, 모바일 건강검진 등과 같은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스마트 보안등, 화상회의 시스템 등 행정과 마을간 소통과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문자 수신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홍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안내 콘텐츠를 개발하고, 통신 불통지역에는 비상벨과 무인경고 방송설비를 설치해 관광객 편의증진과 안전 보호에도 나선다.

신안군은 또 스마트 창조마을 사업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해상 관광유람선을 타고 떠나는 ‘홍도 33경’과 홍도 1구와 2구 마을을 잇는 깃대봉에서 조망하는 다도해 전경, 1931년 일본이 대륙침략에 나선 자국함대 안전을 위해 처음 세워진 ‘홍도 등대’ 등 다양한 볼거리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노력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에도 공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청정자연이 키운 해남 햇고구마 출하요~



해남 햇고구마 수확이 한창이다. 해남은 전국 재배면적의 8%, 전남 재배면적의 35%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 생산단지다.

‘꿀고구마’로 불리는 고구마(해남 1호 품종)는 일반 고구마보다 2달 가량 앞선 지난 7월 24일부터 수확에 들어갔다. 꿀고구마를 시작으로 오박고구마, 밤고구마 수확이 줄을 잇는다.

올해 해남 고구마 재배면적은 1554ha. 수확량은 가뭄으로 지난해(2만1492t)의 80% 수준인 1만6000t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확 중인 조기 출하용 상품의 경우 10kg들이 1박스에 4만 4000원에 판매된다.

해남군 화산면 연곡마을 박성태씨가 고구마 수확에 한창이다.

〈해남군 제공〉

살수대접 거리 퍼레이드·물싸움 등 프로그램 호평

제 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47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축제는 관광객 참여형 축제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데다, 무더위를 식힐 다양한 체험형 축제로 지역 대표 축제의 기틀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 정남진 장흥으로 발길을 돌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한 올 물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살수대접 거리 퍼레이드’였다.

무려 1만명의 관광객과 지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물싸움을 벌이며 여름 무더위를 날려보냈고 지상최대의 물싸움과 수중줄다리기도 지역 역사와 전통의 색채를 더해 호평을 받았다.

야간 이벤트로 펼쳐진 ‘워터락 풀타터’도 주목을 받은 행사로 떠올랐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로 DJ KOO(구준엽)를 비

롯한 국내 유명 DJ들이 관객들과 호흡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주말 야간에 집중적으로 치러진데다, 인지도 높은 유명 DJ를 초청한 점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장흥군은 분석했다.

참여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포털사이트 지역 축제 검색어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고 SNS를 통해 관광객들이 올린 사진도 퍼날라졌다.

장흥군은 매년 행사 수익금의 대부분을 유니세프 물부족 국가와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해온 만큼 올해도 9000만원을 기탁금으로 전달했다.

장흥군 안팎에서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내실을 다지면서도 지역 역사를 가미하는 시도 등 대표적 지역 축제로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

싼!
전
답
입야

바로 삽니다!
(주) 오천개발
H. 010-3605-5000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